

환경문제相談은 784-2003으로

朴英淑의원, 「녹색의 전화」 개설

오로지 경제성만을 염두에 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추진의 後遺症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平民黨 부총재 朴英淑의원이 환경문



朴英淑평민당부총재

제전문상담전화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적극 대처할 뜻을 밝혀 기대를 모은다.

28일 상오 11시 汝矣島

여성백인회관 2층에서 현관심을 갖는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이 그것으로 국내 첫 환경문제전문상담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예방책·피해救濟방법등 상세히 指導

전문가 20명이 담당... 국민제로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塵肺症환자가 1만2천명이 넘고 溫山과 蔚山공단의 주민들은 수은 중독때문에 집단이주를 했으며 光陽灣의 양식장은 麗川공장의 폐수와 배설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生薑化炭素중

독으로 사망한 노동자들과 방사능 오염으로 기형아를 출산한 부인들이 생겨나는 등 환경오염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중인 사람들을

열거하자면 정할 끝이 없습니다. 朴의원은 그런데도 정부

가 마구잡이로 八堂湖에서 골재를 퍼올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靑巴리대회를 평계로 雪嶽山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지적

한후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은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한 개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국민전체의 생명유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녹색의 전화는 전화 784-2003과 2004

10시부터 하오 5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실의 발문상담은 매주 화·수·금요일 상오 10시~하오 5시까지가 가능하다. 상담은 환경관계 전문가 20명이 번갈아 맡게 되며 法的소송으로까지 확대될때 법률고문 변호인들이 맡아 처리해줄 계획